

학원·음식점·노래방 등 화재보험 가입 '미적'

가입시한 1주일 남았는데 광주 47%·전남 66% 불과 과태료 최고 200만원...소방관들 업소들며 가입 권유

노래방·PC방·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규정한 특별법이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광주·전남지역 대상 업체들의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하지 않고 있다 소방 당국의 단속이 적발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방관들이 대상 업소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광주·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광주 지역 학원, 노래방,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는 2081개소로

대상 업소 4412개소의 47.2%에 불과하다. 전남에서도 4889개소 중 66.1%인 3232개 업체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초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다중 이용업소들은 22일까지 의무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다중이용업소 이용 시민이 피해를 봤을 경우 사망 1억원, 부상 2000만원, 재산 피해는 1억원까지 보상해 주는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업주들에게 의무화했다.

의무가입대상은 면적 150㎡ 이상

■ 다중업소 화재보험 가입 실태 <2013년 7월 말까지>

	가입대상	가입업소
광주	4412	2081(47.2%)
전남	4889	3232(66.1%)

※ 가입대상 150㎡ 이상 음식점, 찜질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 22일까지 비가입 업소 과태료

30일 이내	30만원
60일 이내	60만원
90일 초과	최고 200만원

※ 이집시영업정지 조치가능

인 유흥주점·노래방·PC방·제과점·일반 음식점 등으로 지상 2층에 위치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의 경우 면적 100㎡(약 33평) 이상이면 가입해야 한다. 지하에서 영업하는 66㎡ 이상인 업소도 의무 가입 대상이다.

23일부터 미가입 상태에서 적발되면 최초 30만원(30일 이내)부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과태료를 내지않을 경우 영업 정지까지 면 가입해야 한다. 지하에서 영업하는 66㎡ 이상인 업소도 의무 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광주 지역 대형 커피 전문점과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업소 중에서도 가입하지 않은 곳이 적지 않다는 게 소방 당국 설명이다.

소방 당국이 '보험 영업원'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법 시행을 앞두고 해당 업소들을 일일이 돌며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법 시행 시기 및 내용을 모르고 있다 자칫 소방 당국 점검 과정에서 반발, 마찰 등이 빚어질 우려가 적지 않은 것도 한 요인이다.

광주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노래방, 유흥주점 등은 업무가 끝난 뒤 찾아가 홍보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대상 업소의 가입률도 낮아 나중에 과태료를 징수하는 일도 만만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무섭다, 청소년 범죄

집단 성폭행 중학생·음란 동영상 게시 초등생 물품구매 사기에서 보험사기까지 갈수록 대담 광주 성폭행·절도·강도 등 올 상반기 1792건

#. 중학교 3학년인 K군은 3년 전인 지난 2010년 6월 광양시 중마동 한 모텔에서 또래 여중생 A양을 불러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했다. K군 외에 5명의 또래 학생들도 당시 현장에서 흉악한 범죄에 가담했다. 적게는 한 차례, 많게는 다섯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광양경찰은 최근 K군 등 13명을 구속했다.

#. 초등학교 6학년생인 송모군은 인터넷 카페에서 연예인·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 50명의 합성 음란 사진 684장과 애니메이션 음란물을 게시했다가 최근 광주지방법원 검찰청에 적발됐다. 송군 등이 확보한 영상 중 상당수는 초·중·고 여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1~5분 가량의 노출 영상이었다.

청소년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갈수록 잔인해지고 흉악해지는가 하면, 조직화·지능화·대변화하는 추세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청소년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1792건. 절도가 742건(41.4%)로 가장 많았고 폭력 398건(22.2%), 지능(사기 등)이 350건(19.5%), 강도 7건, 강간·강제추행 28건 등이었다.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 성인들 성범죄를 모방하는 흉악한 수법도 적지 않다.

중학생(15)이 지난 6월 같은 학교 여중생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나주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정모(18)군 등 10대 2명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14)을 몰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월 북부경찰에 검거됐다.

또 범죄라는 인식을 갖지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 사기 행각을 벌이다 적발되는 청소년들이 특히 많아졌다. 경찰 설명이다. 서부경찰의 경우 지난 2010년 상반기 사기 혐의로 붙잡힌 청소년은 15명에 불과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52명으로 급증했고 동부경찰도 54건에 불과했던 인터넷 사기 등 지능범죄가 올해 76건으로 늘었다.

전국 54개의 상가를 돌며 8000천만원의 금품을 훔친 10대 6명도 순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보험 사기에 가담하는 사례도 늘어 지난 2011년 952명에서 지난해 1562명 등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10대도 60%이상 급증했다는 게 금융감독원 분석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목포시의원이 음주운전 사고

목포시의회 의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5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여인두 의원은 지난 12일 밤 목포시 연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여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불거진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 목포시민과 지역주민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오래기간 사용 안 한 농지

'납골묘 설치는 무죄' 판결

지목만 농지일 뿐 오랜 기간 농지의 기능을 하지 않은 땅이라면 전용 허가 없이 납골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준호 부장판사는 15일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황모(6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1년 10월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영암군 소재 농지에 500여㎡ 규모의 납골묘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책방 피서가 최고" 무더위가 지속된 15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영풍문고를 찾는 시민들이 책을 읽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토착비리 100일간 특별수사

광주경찰 11월 19일까지 국민공감 기획수사 추진

경찰이 부정·부패 및 생활 밀착형 범죄 척결에 나선다. 올 상반기 '4대 사회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근절에 치안력을 집중했음에도, 국민 10명 중 2명만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굴욕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매년 특별 단속 기간때만 '반짝' 열을 올리고 기간이 끝나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는 '용무사비'식 수사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1월 19일까지 100일 동안 '국민공감 기획수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질적인 부정·부패 사범과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생활밀착범죄 등 두 분야로 나누어 전개되며 고질적 부정·부패 사범의 경우 광주경찰청이, 생활밀착형 범죄는 일선 경찰서가 담당하게 된다. 부정·부패 사범은 자치단체장·의원·교육감·공무원 등의 인사 및 각종

인·허가 관련비리부터 자치단체와 토착세력과의 유착행위 및 공무원의 예산 횡령행위, 각종 학교의 채용·급식 관련 뇌물수수, 공사비·보조금 횡령 등 교육비리, 사이버 기자의 금품 갈취 행위까지 포함된다.

또 경찰은 생활밀착형 범죄인 ▲보령·악성사기 ▲보이스피싱·대출사기 ▲조직폭력·갈취사범 ▲불법사금융 ▲스마트폰 강·절도 및 장물범 검거에 총력을 쏟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술취한 남편이 폭행"

이주여성, 경찰에 고소장

이주여성이 14살 차이가 나는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배트

남 이주여성 B(여·26)씨는 지난 15일 새벽 3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단독주택에서 남편 P(40)씨가 자신의 몸을 수차례 때려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한국 말을 잘하는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가족 사망보험금 수입액 받았다" 속여 외상 술·밥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준호 부장판사는 15일 거액의 가족 사망보험금을 타게 됐다 고 속여 외상 술·밥을 먹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액을 갚지도 않았다"며 "피

해 규모와 김씨가 다른 죄에 대한 형을 복역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김씨는 지난해 12월 7~15일 경 남 하동과 광양의 식당 등지에서 "4형제 중 3형제가 사고로 숨져 17억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다"고 속여 모두 88만원 상당의 술, 밥을 외상으로 먹고 현금을 빌린 혐의로 기소.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자연산 참돔을 직접달여 만든 14년 전통

참돔 보양식전문점

삼계탕 전문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가격"

참돔 토종 참돔닭 / 울 청둥오리 / 울 삼계탕

한방 한방 백숙 / 한방 청둥오리 / 춘담백숙 삼계탕

토종참돔닭 (9인분, 식사 소포함) **40,000원**

춘담백숙 **38,000원**

울의 효능 위염, 위궤양 효과 / 과음 및 숙취해소 / 장부실 개선 및 어혈 제거/항암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 원기회복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데

함양웃닭 062)515-5757(웃칠웃칠)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3 해피뷰병원 뒤(구 삼성병원), 수창초교 후문 건너편

사정상 "매매"

- 광주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1층 코너 25평
- 매 매 - 1억 5500만원(일시불 조건)
- 대출 - 7300만원(월 이자 35만원)
- 임대 - 보 3000만원에 월 125만원 현재 편의점 영업중
- 수입 - 5200만원 투자에 월 90만원
- 기타 - 차후 매매시 2억정도 예상

주인 직매 : 010-3605-5000